

여수섬섬길 독서 마라톤 완주해 보세요

다음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개최 누적 독서량 맞춰 코스 선택 완주 완주자 책자 제작 제공 등 혜택 다양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2026년 여수섬섬길 독서 마라톤 대회'가 내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여수시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책 1쪽을 1m로 환산해 누적 독서량으로 여수섬섬길 코스를 완주하는 방식의 독서 프로그램으로 여수시민이라면 개인·가족·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자신의 독서량에 맞춰 코스를 선택해 도전할 수 있다. 개인 참가자는 여수섬섬길 3km·5km·10km 코스, 가족·단체 참가자는 하프코스(21km) 또는 풀코스(42km)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3월3일부터 8월16일까지 여수시립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자는 대회 기간 동안 도서관 대출도서 또는 개인 소장도서를 읽고 독서마라톤일지(독서감상문)를 작성해 누적 독서량을 기록하게 되며 선택한 코스 달성을 목표로 독서를 이어간다.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와 개인별 독서마라톤일

지를 책자로 제작해 제공한다. 또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기존 5권에서 12권) ▲예약도서 권수 확대(기존 2권에서 4권) ▲완주 기념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독서마라톤일지 우수자에게는 여수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작품은 여수시청 로비와 시립도서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섬섬길 독서 마라톤 대회는 독서를 일상 속 즐거운 도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스케일업 실증 스마트센터' 조감도.

광양시 '스케일업 스마트센터' 설계용역비 확보

2029년까지 290억원 들여 조성

광양시가 첨단 제조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양산 전환 등 성장 확대) 지원과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스케일업 실증 스마트센터'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실시설계용역비 확보는 총사업비 29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100억원, 현물 5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본격 착수를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광양 익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금속소재융합센터 부지에 연면적 5644㎡ 규모의 '공유 공장형 실증(시험·검증)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 제조 스타트업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

업화로 이어지기 위해 공정 검증과 시제품 실증, 양산 전 단계 테스트 등 반복적인 시험과 공정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공간·장비 중심 지원만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 제조환경을 기반으로 시험·실증과 공정 개선까지 연계되는 구조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광양시는 '스케일업 실증 스마트센터'를 통해 스타트업이 실제 제조환경에서 제품 생산 공정 흐름과 장비 구성, 작업 조건 등을 직접 설계하고, 소규모 시험 생산으로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공정 최적화를 거쳐 초도 양산과 대량 생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실증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수리수리 마수리 고흥 미술학교' 참여자 모집

다음달 9일까지... 2회 10명씩

고흥군이 미술을 매개로 창의력과 집중력,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수리수리 마수리 고흥 미술학교'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고흥 미술학교'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미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부 일정은 ▲3월 15일 카드미술 편 ▲3월 29일 고전미술(링킹링, 겹엔블, 드림 링 등) 편으로 운영된다. 각 회차는 오프닝 미술 공연을 시작으로 이론 학습과 실습을 진행한 뒤 참여자의 마

술 발표로 마무리된다.

모집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3월9일까지이며, 회차별로 전 연령층 대상 10명을 모집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 꿈꾸는예술터 누리집(ghart.kr)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문화도시센터 관치 센터장은 "미술은 생애주기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창의력과 집중력 향상,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예술 장르"라며 "누군가에게 작은 놀라움을 선물할 수 있는 미술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도배재능봉사단 등 3개 단체 동절기 주거환경개선 봉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도배재능봉사단과 광양매화 로타리클럽, 직·공장새마을운동광양시협의회가 최근(14, 21, 22일) 총 30여명이 참여해 동절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광양시가족센터의 의뢰로 선정된 노후주택 거주 자녀 동거 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가구는 실내·외에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이 다량 적치되어 있었으며, 곰팡이로 오염된 벽지와 장판, 노후 전열기구 등으로 인해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봉사단은 폐기전과 생활폐기물 반출 및 분리수거를 비롯해 실내·외 대청소와 정리정돈을 실시했으며,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광양시 '꿈꿨던 집' 사업과 연계한 폐기물 처리 지원으로 환경정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골약동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와 협력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도배재능봉사단, 광양매화로타리클럽, 직·공장새마을운동광양시협의회가 최근 동절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양시 제공>

지붕 세척과 옥상 방수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겨울철 누수와 한기 유입을 예방하고 주거 안전성과 단열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광영동 금성성크는 다량 발생한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지원에 참여해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최광석 도배재능봉사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깨끗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캐릭터 '루미&퐁이' 독자 브랜드로 콘텐츠산업 견인

독자적인 상표권 확보 IP 육성

오픈 라이선싱 민간 활용 확대

순천시가 '루미&퐁이(이하 루미퐁이)'(사진) 캐릭터의 독자적인 상표권 확보와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루미퐁이는 지난해 CJ ENM과 협업을 통해 '순천을 사랑하는 호기심 많은 요정'이라는 매력적인 세계관과 친숙한 비주얼로 재탄생했다. 시는 루미퐁이를 단순한 지자체 상징물을 넘어, 민간 시장에서 통하는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권)로 육



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개편한 루미퐁이 캐릭터 상징(연자로 6)에는 설 연휴 기간에만 5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그 인기를 증명했다.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루미퐁이의 귀여운 비주얼은 물론, 저렴한

가격대와 높은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굿즈 라인업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오픈 라이선싱(Open Licensing)' 정책도 추진한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간단한 사용승인 절차만 거치면 루미퐁이를 활용한 상품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IP 사용 승인 진입장벽을 낮춰 수익 창출과 콘텐츠 재생산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총 45건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루미퐁이가 기념품·포토존·버스 랩핑 등 다양한 굿즈 및 공간 디자인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시장장을 입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구례 산동농협, '산동 나누고 가게' 성금 기탁

구례군 산동농협동조합(이하 산동농협)이 최근 '산동 나누고 가게'에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산동농협은 2021년부터 매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6년째 '산동 나누고 가게'에 전달해 오고 있어 관내 저소득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이웃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산동 나누고 가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산동 나누고 가게'는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내달 4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으로 이번 기탁한 성금 역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나눔물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영만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동농협에서 올해도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꼭 필요한 나눔물품을 준비해 올해도 매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허재근 산동농협조합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직원들의 뜻을 모아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